



▲박정희 할머니가 딸 명애와 함께 만든 그림 동화책.
▼큰딸 명애의 육아일기 중.

▲막내 제룡의 육아일기 중.
▶고(故) 박정희 할머니.



전쟁 속 오남매 향한 엄마의 시선

“우리는三八(38)선을 넘어온 해 너를 나왔기 때문에 너의 별명은 ‘三八네’라고 했었다. 평양서 스(서)기시작한 너를 울목동 집에 와서 나아서, 외할아버지들이 길러 주시게 될 줄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던) 일이다. 그해 겨울(울)~ 너는 너무 배가 고파서 몹시 울고 있었는데(던) 생각이 난다.”(현애가 한 살 때 1947)

고(故) 박정희(1923~2014) 할머니가 쓴 육아일기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오남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과 자식들이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박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오남매를 향한 박 할머니의 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오는 18일부터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열리는 6월 특별기획 ‘박정희 할머니의 행복한 육아일기’전에서는 가족에 대한 애뜻함을 만날 수 있다.

박 할머니는 최초의 한글 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차녀로,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67세의 나이에 수재화가로 데뷔해 인천 평안에 위치한 ‘수재화의

광주 롯데갤러리 ‘박정희 할머니의 행복한 육아일기’전

출생부터 7세까지 성장과정 그림·글로 남겨
‘1·4 후퇴’ ‘4·19 혁명’ 시대상도 고스란히
창작동화책 등 80여점... 18일~7월 13일

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았던 행복한 노년의 삶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됐다. 지난해 12월 아흔둘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45~1960년 사이에 제작된 다섯 권의 육아 일기는 할머니가 직접 그리고 쓴 것들이다. 고은 천을 몇몇 뒤 정성스럽게 손바느질로 엮어 제본한 책들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선물로는 느낄 수 없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일기에서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부터, 취향, 성격, 별명의 유래 등을 꼼꼼히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할머니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인다. 6·25 전쟁, 1·4 후퇴 등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마치 한 권의 작은 역사책을 보는 듯하다.

“너를 업고 삼산위(외)와 지하실로, 송도로 피난을 다닌 것은 옥월이니 만 일개월 남짓한 너는 불편하다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었다). 울목동집에서 난을 겪었다. 비행기, 폭격, 함포, 불 모다(두) 말할 수 없이 무서웠으나, 넓은 방 넓은 마루를 기어다니며 노는 너에게는 아모(무)일 없었다.”(인애가 한 살 때 ‘전쟁과 피난’ 1950)

큰딸과 함께 만든 창작동화책은 아이들을 위한 적당한 동화책이나 한글 교육 책을 구하기 힘들던 시절에 그것의 내용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한 것이다.

작품들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가족은 닦았구나’라고 공감하게 된다. 특히 23명의 대식구를 챙겨야 했던 며느리로서의 삶이 느껴짐과 함께 식구들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그려서 기록한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누나들을 길(기)를때도 그랬지만 것이 부족한 편이었다. 할머니가 너의 먹는 사중(중)을 늘 맡아 해주셨는데(중략) 그러나 절대 과식하는 법이 없었다.(중략) 아무턴(튼)지 배가 뽕(뽕)룩해서 스타일이 미운 시절이 없었던 아이였다.”(막내 제룡이를 기쁘게 한 음식)

이 밖에도 일기에서는 첫 아이에 대한 벅찬 축하와 기대, 서툴렀으나 최선을 다했던 엄마의 노고도 느껴진다. 또 셋째가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연, 피난 때문에 돌떡을 나른 사연 등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1997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그녀의 육아일기는 시대 기록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었다가 최근 유족들이 돌려받았다. 전시는 7월13일까지다. 문의 062-221-1807~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기자 노트

꿈을 키워주는 미술관



김경인
문화부 기자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을 찾았던 초등학생들이 직원들 불철질 탓에 제대로 감상을 못하고 돌아가야 했던 일이 있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한 친구가 미술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유난히 가슴에 와 닿았다.

“나는 미술관에 들어서자 많은 그림이 있다는 걸 알고 엄청 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참으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처음으로 두근거림을 느꼈을 것이다. 벽에 걸린 작품을 따라 그려보면서 새로운 꿈도 그리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두근거림이 앞으로 그 친구의 꿈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장학습을 추진했던 교사도 아이들에게 그런 감정을 심어주고 싶었을 거다.

하지만 아이의 두근거림은 얼마 가지 못했다. 전시장에 앉아 그림을 그리려는 순간 일부 직원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작품을 관리하는 미술관 직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아이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광주시립미술관에 바랍니다’라는 글에도 직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기 반성이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기는 관객이 없는 전시장 안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작품에 대해 설명해줄 수는 없었을까. 무언가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상투적인 말 대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친절함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번 관람을 약속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장이나 미술관 직원들이 학생들을 찾아가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꿈을 찾았다면 그것만큼 미술관에 보람된 일이 있었을까.

몇 해전 일본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을 찾았을 때 유치원생들의 단체 관람이 한창이었다. 아이들이 다리 아파 할까봐 바닥에 앉혀놓고 설명을 해주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줄을 세운 뒤 보고 지나치는 우리나라 작품 관람 모습과는 정말 다른 풍경이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도 그동안 어린이미술관의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강조해왔다. 아이들이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전시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중요한 것은 시설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광주시 감사관실에서 미술관을 찾아갔다고 한다. 미술관이 그런 일들에 일회성비하하기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한다.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미술관을 기대한다.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기반...’

오늘 서영채 서울대 교수 초청 강연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기반 사업단’(단장·신혜진 국어국문과 교수)이 제9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12일(오후 2시) 인문대 1호관(313호 현공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목포 출신 서영채 서울대학교(아시아언어문학부) 교수를 초청, ‘헤타토포피아, 지역어, 문학’을 주제로 서사 속에 나타나는 지역 사회 모습을 주제의 의식 문체와 연계해 다양한 담론의 형성 지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서 교수는 이문구 소설, 홍상수 ‘북촌방향’, 임철우 ‘백년여관’을 중심으로 죄의식과 1980년대적 주체의 탄생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인문학 개념정원’, ‘미메시스’의 힘, ‘이침의 영웅주의’ 등을 펴냈으며 제2회 올해의 예술상(문학부문), 제16회 팔봉비평문학상, 제17회 소천비평문학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경자씨와 재봉틀 II - ‘엄마를 부탁해’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어머니 사랑을 깨닫고, 그녀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인 ‘경자씨와 재봉틀’ 두 번째 이야기 ‘경자씨와 재봉틀 II - 엄마를 부탁해’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시범운영했다.

‘경자씨와 재봉틀 II’는 오는 23일부터 7월 30일(화요일) 목요일 10시~13시까지 50~60대 엄마와 딸을 대상으로 빛고을아트스페이스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딸을 시집보낸 엄마와 그 딸의 관계에 주목한다. ‘황혼 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부모 세대의 육아로 인한 갈등 등을 화해와 치유를 위한 바느질로 풀어나간다.

또 역할극을 통해 상처 난 엄마와 딸의 내면 치유를 시도하며 전시회를 기획해 참가자가 만든 바느질 작품을 전시한다.

엄마와 딸의 마음을 엮기 위해 바느질은 김미선, 김희련, 신수란, 이해진씨 등의 강사가 돕는다.

참가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질문지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메일(giarte@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5763.
/오광록기자 kroh@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과 어우러진 가야금 연주’

광주가야금연주단(단장 송영란·사진) 정기연주회 ‘춤추는 가얏고’가 오는 17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춤추는 가얏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 창작곡과 영화 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발레리나 조성미·강병철씨, 현대무용가 김규진, 한국무용가 최지선, 댄스그룹 KU RO 등 무용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춤추는 가얏고

광주가야금연주단, 17일 발레·한국무용 등과 호흡

첫 곡은 임재원·이보미·박민경씨가 연주하는 창작곡 ‘행복한 가야금’이다. 이어 인도네시아 자바섬 민속가락을 모티브로 만든 가야금 3중주곡 ‘자바 민요’, 동명의 영화 테마를 25현 가야금곡으로 편곡한 ‘러브 스토리’, 국립무용단의 ‘도

마부인’ 중 한 대목으로 구성된 ‘사랑의 춤’이 공연된다.

그밖에 초연곡인 ‘공무도하가’, 한들의 가요를 편곡한 ‘홀로아리랑’ 드라마 ‘태양인 이제마’ 주제곡 ‘여인’, 파헬렐의 ‘개논’ 등이 연주된다.



20여명의 단원들이외에 김형석(대금), 안연섭(타악), 김보람(신디), 이현신(해금)씨 등이 협연한다.

지난 1989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가야금연주단은 지금까지 28차례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의,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구한미소방서, 동부소방서, KT, 중앙초교, 구한미소방서, 동부소방서